

퇴직 후에는 어떤 삶을 살까...고령사회에 대한 섬뜩한 경고



박성천 기자가
추천하는 책
‘과로노인’

후지타 다카노리 지음·홍성민 옮김



우리는 가끔 노후에 대해 생각할 때가 있다. 그리고 문득 문득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게 된다. 일테면 이런 것들이다. “나는 앞으로 얼마나 일할 수 있을까?”, “퇴직 후에는 어떤 삶을 살게 될까?”, “어려움에 처하면 도움을 줄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일을 그만 둔 뒤에도 문화생활을 하며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까?”

2017년 8월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65세 이상 인구가 14% 이상인 사회가 된 것이다. 고령화사회(65세 이상 인구 7% 이상 사회)에서 고령사회가 되기까지 고작 17년밖에 걸리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2025년에는 65세 이상 노인이 10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늙어가고 있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막연하게 은퇴 후에는 누리면서 살 거라 기대한다. 과연 그럴까? 불행하게도 더 가난하고,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지 모르면서 말이다.

‘어떻게든 살겠지’ 했다가 노후지옥

수입·저축 없어 극빈층으로 살아

가난은 구제 아닌 제도 통해

‘예방’ 개념으로 다가가야

‘2025년 하류노인이 되거나 과로로 죽는다’고 예상한 이가 있다. ‘어떻게든 살겠지’라고 생각하던 노후가 지옥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사회복지전문가로 일본의 수많은 노인들 사례를 지켜본 후지타 다카노리는 전작 ‘2020 하류노인이 온다’에서 누구나 하류노인이 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하류노인’이란 “수입이 없고 저축이 없으며 의지할 사회적 관계가 없어서 극빈층으로 살아가는 노인”을 일컫는다. 이번엔 다카노리가 펴낸 속편 ‘과로노인’은 ‘저녁’ 대신 ‘과로’와 ‘가난’만 있을지 모를 노후에 대해 분석한다.

저자는 오늘날 일본 노인들의 빈곤과 열악한 노동 문제를 적나라하게 밝혀냈다. 일본의 사례를 가 법계 넘길 수 없는 것은 한국에도 이미 수많은 ‘하류·과로노인’이 있기 때문이다. 폐지를 줄거나 구걸하는 노인들은 자칫 우리의 3, 40년 후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

사실 고령사회의 문제는 개인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을 넘었다. 연금 또한 턱없이 부족하고 가족도 더 이상 의지가 되지 못한다. 오히려 경제적으로 힘든 자식과 손주를 키우거나 병든 부모의 간병을 위해 노후에도 일을 해야 한다.

“어머니를 혼자 감당하다 보니 제 자신도 이상해지는 것 같았어요. 피로와 수면 부족으로 한계에 다다랐을 때 아주 잠깐이지만 ‘어머니와 함께 죽어버릴까’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어요.”(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간병하는 60대 노인)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류노인이 되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사회적으로 하류노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

저자는 누구나 불안함을 느끼지 않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가난을 구제가 아닌 제도를 통한 ‘예방’의 개념으로 다가가야 한다는 논리다.

또한 비정규직이어서 생활에 어려움이 없는 시스템의 구축과 현금이 없어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

‘납세외식’에 대한 인식의 전환도 요구된다. 즉 세금 부담이 늘어 의료비와 요양비, 교육비 등의 지출 비용이 줄면 개인의 부담은 늘지 않기 때문이다.

저자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비난하고 비곤 자체를 무시하는 것은 사회 전체가 빈곤을 ‘비정상적’으로 두려워한다”는 증거라며 “용기를 내어 적시하고 한 걸음 다가서지 않으면 해결책을 찾을 수 없고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강조한다.

〈청림출판·1만5000원〉

/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약력

소설가·문학박사·전남대 강사, 저서 ‘메스를 드는 시간’ 등 다수.

김 숨 ‘당신의 신’

작가 김숨이 ‘국수’ 이후 3년 만에 소설집 ‘당신의 신’을 펴냈다. 문학평론가 정홍수는 김숨의 작품 세계를 일컬어 “바늘 한 뿔과 한 뿔 사이, 그 고르지만 영원히 포개질 수 없는 차이에 작가가 인간을, 세계를 말하는 방식이 있는 듯하다. 한결같지만 다른 숨, 그 숨들의 기록(‘한결같지만 다른, 숨 이야기’(Axt no.005))”이라 말한 바 있다.

작품집에는 ‘이혼’, ‘음산요금소’, ‘새의 장례식’ 세 편이 묶였다. 작가는 각각 사회의 인정이자 굴레인 결혼/이혼이라는 제도를 통해 여성 삶의 근본 원리를 담아낸다. 또한 ‘동물에 관하여 생각하는 것’으로써 인간의 탐욕과 모순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김유정문학상, 황순원문학상 후보작에 오르며 평단의 주목을 받은 작품 ‘이혼’은 다양한 결혼생활의 양태를 보여준다. 이러한 다양한 양태 이면에는 사실은 다양한 방식으로 고통받는 여성의 목소리가 배어 있다.

다음 작품 ‘음산요금소’는 통과례의 상징으로 묘사된다. 이혼 후 전권도 포기한 ‘그녀’가 일하는 폐쇄된 공간이다. 가족도 연인도 없이 혼자 지내는 그녀는 “부스 안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늙어가는 것 같은 기분”을 느낀다.

‘새의 장례식’에서는 남성 화자의 목소리를 만날 수 있다. 아버지의 폭력 성향을 물려받아 ‘그녀’를 폭행했던 ‘나’, 결국 ‘나’와 이혼한 뒤 ‘그녀’가 재혼한 ‘그’. 소설은 나와 그, 두 사람의 만남을 담았다. 이혼하고 두 사람의 관계가 끊어졌다 해도 삶은 이어진다.

〈문학동네·1만2000원〉

/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시오노 나나미 지음·이경덕 옮김 ‘그리스인 이야기 II’

시오노 나나미는 이 시대 가장 뛰어난 역사 저술가 중 한 사람으로 꼽힌다. 그가 서양 문명과 민주주의의 원류, 그리스와 그리스인의 역사 탐색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 모두 3권으로 출간하는 시리즈 ‘그리스인 이야기’에서 자자는 특유의 박진감 넘치는 문장으로 그리스인의 생각, 인생, 정치, 문화, 사회 등 전모를 펼쳐낸다.

그 가운데 둘째 권 책 ‘그리스인 이야기 II’는 다양한 분야에서 절정기를 이룬 아테네의 황금시대를 조망한다. 저자는 아테네의 국운을 결정짓는 펠로폰네소스전쟁과 아테네의 쇠퇴를 통해 그리스 세계가 급변하는 과정을 그렸다.

기원전 461~기원전 492년까지 아테네의 발전은 눈부셨고 민주주의는 “그 이전에도 그 이후로도 실현된 일이 없을 만큼 원활하게 작동”했을 정도로 최고조에 달했다. 그러나 아테네가 100년 동안 유지해온 그리스 세계의 패권과 민주정치를 상실하고 쇠락하게 된 것은 단순히 펠로폰네소스전쟁에서 패한 때문만도 아니다. 저자는 아테네의 추락을 아테네만의 문제로 보지 않고 “그리스 전체가 패했다. 자기들이 쌓아 올린 가치관을 스스로 붕괴시킨 것”이라고 평했다.

시오노 나나미는 “민주정치의 리더는 민중이 자신감을 가지도록 ‘유도’하지만 우중정치의 리더는 민중의 마음속 불안을 ‘선동’한다고” 분석했다. 즉 아테네 국정이 이 선동자 그룹에 의해 좌우되었지만, 그들은 비전을 내놓기보다 비판만 일삼고 일관된 정책을 펴지 않았다는 것이다.



〈살림·1만9000원〉

/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오가와 히토시 지음·박진열 옮김 ‘철학의 사생활’

‘회사에서 상사는 왜 필요하지?’ ‘사람들이 조용히 있고 싶어하는 이유는?’ 문득 너무나 당연한 것들에 대해서 의문이 들 때가 있다. 우리는 혼자 걷다가, 친구와 대화를 하며, 아이에게 무언가 설명하다가, 일에 치이면서 사소한 의문을 품는다. 그러면 질문에 질문은 꼬리를 물며 무수히 머릿속에서 쏟아진다. ‘철학의 사생활’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철학적으로 접근하는 대신 해답을 일상에서 찾는다.

실생활에서 건져 올린 질문과 철학자의 대답이 팽팽처럼 넘나들며 우리는 자연스럽게 철학자가 일상에 대해 생각하는 법을 익히게 된다. 그렇기에 철학은 어렵지 않다. 오히려 평소에 들었던 궁금증과 철학자의 사유가 만나는 지점을 짚어보는 과정이 즐거울 것이다.

저자인 오가와 히토시는 ‘철학 용어 사전’ ‘인생이 묻고 철학이 답하다’ ‘철학의 교실’ 등을 펴냈으며 일본의 대표적인 ‘시민 철학자’라 불릴 만큼 쉽고 재밌는 철학을 추구한다. 저자는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경험담과 견해를 풀어놓는데, ‘살아 있는’ 철학자의 일상을 들여다보는 재미도 쏠쏠하다.

인터넷 쇼핑을 왜 자주 하는지, 무엇을 포기했고 언제가 포기할 때인지, 그가 느끼는 자유란 어떤 것인지...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철학자의 삶을 엿볼 수 있다.

더불어 철학은 어렵지 않으며 오히려 실생활에 맞닿아 있다고 깨닫게 될 것이다. ‘철학의 사생활’은 철학은 삶 바깥에서 부유하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생활과 조우한다는 걸 증명한다.

〈라그고·1만4500원〉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대산 인테리어 (사업부)

광주광역시 북구 증흥동 373-14
광주역후문 증흥삼거리 부근

신축건물 설계시공 상가인테리어 조립식건물
징크시공 케뮤시공 판넬시공 렉산시공 데크시공
싱크대 샷시 실내인테리어 아파트인테리어



한샘가맹점

(싱크, 불박이, 욕실, 마루, 창호, 도어) 062-522-0482

광주전남 기능장 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표창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특수가발 별매 (원터치) 테잎 x 핀 x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 시술 1만여명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아파트 상가2층

062 673 5858(모발모발)



H.M.사
등급제품 130만원 59만원